

문화광장



고재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장

제주 자연유산, 문화유산 돌보기

제주사람으로 태어나 제주에서 살고 있다. 매일 아침 정실에 있는 사무실 옥상에 올라 한라산의 사계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육지 사람들은 제주가 좋다고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온다. 심지어 제주로 이주해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정작 제주사람들만이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을 잊고 사는 것 같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작년에 학술조사라는 미명하에 한라산 정상을 30년만에 올랐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 백록담을 포함해 주변 경관을 감상했다. 힘들어 한라산신계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내려온 적이 있다.

최근 대전에 출장을 갔었는데, 시간이 좀 남아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을 둘러 본적이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니 친숙한 동물 2마리가 나를 노려본다. 천연기념물인 제주마와 제주흑돼지였다. 육지에서 보니 반가웠다. 안으로 들어가니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들이 준비하게 늘어서 있다. 곳곳에 제주의 자연유산이 보인다. 만장굴을 비롯한 동굴과 문섬, 백록담, 주상절리, 산방산, 화석, 나무 등 수없이 많은 유산이 전시장을 메우고 있다. 전시를 보고 나니 제주 자연유산을 빼면 행할 것 같은 분위기를 느꼈다. 아마도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전국 면적당 분포도에 있어 제주가 제일 높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국적으로 자연유산이든 문화유산이든 문화재 돌봄사업 혹은 지킴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돌봄사업은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보수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한 사업은 각종 문화재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경미한 문화재 훼손사항에 대해 신속히 복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인력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다. 제주에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분리하여 2개의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3년으로 업무평가를 한다. 사업의 선정은 평가를 통해 문화재보존관리 실적, 문화재수리가 능성, 문화재 보존관리 능력을 고려한 제안서 입찰에 의해 선정한다. 이러한 사업은 문화재 보호와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문화재 보존과학의 전문가와 문화재 보존처리 등 전문 인력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성이 요구된다. 현재 제주는 공공기관에서 대

행하거나 전문인력이 미비한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다 보니 인력구조의 경직화, 행정인력의 비대화로 인해 정작 문화재 돌봄 본연의 업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조직구조를 보면 단장, 실장, 팀장, 팀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팀장급 이상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상시인력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은 우리가 공유해야 할 자산이다. 이를 후손에게 부끄럽없이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제주지역의 유산은 널려 있다. 너무 가까이에 있어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각종 개발로 인한 유산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보다 철저한 보호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문화재와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도 제주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설

제2공항 의견수렴, 요식절차여선 안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론화를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토부가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됩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과 의견수렴을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합니다. 주민의견은 공항의 수요전망을 비롯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 규모 및 배치, 도민이익 극대화 방안, 지역상생 방안 등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항공정책위원회 심의에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합니다. 제2공항은 2035년까지 1689만명을 수용하고 2단계로 2055년까지 1992만명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 추진됩니다. 공항간 역할 분담은 1단계로 2035년까지는 국내선 전용으로 운영해 현 제주공항은

국내선 50%, 국제선 100%를 담당하고 제2공항은 국내선 50%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항 운영은 현재의 제주공항과 연계해 한국공항공사로 단일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제주도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기회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더라도 및 배치, 도민이익 극대화 방안, 지역상생 방안 등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단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도의회 의결조차 일정상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만큼 국토부는 제2공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제대로 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의 요식절차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선 결코 안될 것입니다.

열린마당

6년만에 개통된 애조로 공사를 마무리하며



고병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에 완공해 애조로 건설공사의 대장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우선 본 도로공사 공사관리관으로서 개통하면서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해 개통 일에 도로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공사 추진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으로 공사완공이 늦어진 점 모두가 아쉽다. 그리고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린 9월, 전화가 너머로 들리는 공사 관계자의 한숨소리와 빗소리가 함께 뒤엉켜 들릴 때는 필자의 마음도 공허했던 일 모두가 이젠 기억 속에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굶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로개통에 전념해 주신 공사관계자와 이를 묵묵히 지켜보며 움직임을 북돋아 주신 도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주도는 개통 구간에 대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하면서 불편한 점, 개선해야 할 점은 교통전문가 등과 모니터링 해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불편을 감내하면서 성숙한 도민인식을 발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1일, 6년만에 아라동(첨단로)에서 봉개동(번영로)을 연결하는 애조로 4.2km 구간이 개통됐다.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2013년 4월에 착공해 금년 10월에 준공됐으며, 공사비는 900억원 가까이 소요된 대규모 사업으로 제주시 동부지역 일주도로 통과 교통을 우회처리 할 수 있어 도심 교통체증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애조로 전체 26.3km중에 18.3km(애월 구읍~첨단로)는 이미 개통돼 제주북부지역 동·서 교통망 한 축으로 크게 이바지해 왔으며, 애조로 마지막 구간인 봉개에서 신촌까지 3.8km는 금년에 발주하고 오는 2023년

뉴스-in

‘제2공항 도민공론화’ 끝나지 않는 설전

의원 간 충돌 ‘자중론’ 제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도민공론화를 둘러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간 설전이 계속되면서 ‘자중론’ 목소리가 제기. 2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원철 위원장과 안창남 의원이 또다시 공론화 추진근거를 놓고 충돌. 이를 두고 의원 안팎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똑같은 설전이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오은지기자

“그동안 분명히 밝혀왔듯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 또다른 의원은 “유력정당에서 영입 제안을 해도 정치를 하지 않을 생각이나”고 물었고, 양 시장은 “하지 않겠다”며 불출마 의사를 거듭 확인. 이태윤기자

올해 감귤 품질로 승부해도 쉽지 않은데

올해산 노지감귤을 둘러싸고 우울한 소식만 들리고 있습니다. 노지감귤 출하가 본격 시작됐으나 초기 가격이 시원치 않습니다. 지난 16일 전국도매시장 평균 경락가는 7100원(5kg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500원 가량 낮게 형성됐습니다. 가격이나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지감귤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의 10월 과일부문 자료에 따르면 포도를 제외한 주요 과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귤 7%, 사과 6%, 배 3%, 단감 4% 각각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포도 생산량은 7%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노지감귤은 잇단 태풍에 잦은 비발씨로 검은점무늬병, 궤양병 등의 발병과 열과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등 녹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지감귤 출하 초기부터 비상품을 유통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농가와 상인들은 노지감귤이 첫 출하되기도 전에 미숙과를 출하하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당도 8브릭스 미만의 미숙과를 수확해 보관한 농가와 선과장 등 4곳이 걸렸습니 다.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흐릴뿐 아니라 제값 받기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제주감귤은 최근 소비심리 위축에다 경쟁과일의 생산량 증가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올해산 노지감귤은 장기간 굶은 날씨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품질 저하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농가와 상인의 알뜰한 상술까지 판치 생산량은 7%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노지감귤은 잇단 태풍에 잦은 비발씨로 검은점무늬병, 궤양병 등의 발병과 열과가 전년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양공진(하귀농협 과장) 아버지 제주양공 웅구(향년 77세)께서 서기 2019년 10월 20일 22시 37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0월 22일(화)
발인일시: 2019년 10월 23일(수) 오전 8시 20분
발인장소: 하귀농협장례식장 201호 분향실
장 차: 양지공원
부인 고순자
아들 양공진 며느리 소진희
공훈 김정희
손자 양선우 손녀 양서윤
진서
\* 연락처: 고순자 010-9838-1221
양공진 010-7178-9421
양공훈 010-3433-1056

부고 현영택(서귀포농협조합장) 아버지 연주현공 성권(향년 84세)께서 서기 2019년 10월 18일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0월 23일(수)
발인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오전 7시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3분향소
장 지: 서흥동 가족묘지(서흥동 239-3)
부인 정연길
아들 현영택 며느리 김명선
훈택 김인열
창택 김은경
성택 김수정
딸 현순희 사위 김무정
영순 최운봉
장손 현재승
손녀 현재원 손서 양근도
외손자 최광호 외손녀 김하나 김빛나
\* 연락처: 현영택 010-7251-0114
김명선 010-3060-8541

분실공고
● 분실물
화북 STX NEUM 제주화북 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서 화북 STX NEUM 107동 102호 (제주시 화북2동 5055번지 일원)
상기 계약서를 분실하였기에 분실물에 대한 무효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위 공고인 김성준

제주도 토지 매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평화로변
·생산관리지역 목장용지
·494,244㎡(분할매매 가능)
·2차선 도로점 시멘트 도로점
기타문의 전화요망
☎ 010-5110-5660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폼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010-3693-2000, 010-2696-987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시면 이문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